

<철학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>

-김선희(이화여대 인문과학원 HK 연구교수)

0. 철학에 다가가기 위한 진단 평가

1) wolf point 빈곤 분기점

2) I bombed Beirut.

애니메이션 <바시르와 왈츠를>(아리 폴먼, 2008)의 주제곡

cf) <I bombed Korea>(by CAKE, 1994)

I bombed Korea every night.

My engine sang into the salty sky.

I didn't know if I would live or die.

3) "어떻게 사랑이 변하니"

영화 <봄날은 간다>(허진호, 2001)의 주인공 상우의 대사

4) 마흔이 넘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끝이다.

(年四十而見惡焉 其終也已)

『논어』, 「양화」

5) "감각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조화로운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?"

영화 <청녀>(이만희, 1974)의 마지막 대사

cf) 앙드레 지드, 『전원교향곡』

6) "I am the master of mt fate, I am the captain of my soul."

William Enerst Henley(1849~1903)의 시 <Invictus>의 한 구절

cf)2001년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폭파범 티모시 맥베이의 최후 진술

1. 질문의 전환

● "철학이란 무엇인가?"

-정의하기

-틀에 넣기

-장악하기

-계보, 체계, 형식, 개념 등

→출발점을 놓치게 만드는 질문

cf) 고문서보관소의 철학과 자연사박물관의 철학

● “누가 철학하는가?”

-결단과 선택의 문제

cf) 맹자

-균열과 틈: 세계의 균열, 인식의 균열, 인격의 균열

-불안과 불만

→“그들”에서 “나”로, “계보”에서 “맥락”으로

● “왜 지금 철학인가?”

-진단 평가의 결과는? 왜 반드시 철학이어야 하는가?

-개인의 질문이자 시대의 질문

ex) 나는 왜 시를 쓰지 않는가?

나는 왜 자기계발서에 만족하지 않는가?

나는 왜 심리서와 과학책을 덮고 철학책을 펼쳤는가?

나는 왜 피켓과 확성기를 들지 않고 철학책을 잡았는가?

● “철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?”

-재정의 가능성: 판단정지와 재사유

ex) 논리학/ 비형식적 오류

cf) 그렇다면 詩는?

객관성/ 체계.... 동의 가능성과 형식적 건전성

-세계(사회)에 대한 개입

ex) 다양한 출발점: 우주적 감수성, 타자의 고통, 정치의식, 논리적 완전세계 등등

-비판과 반성의 기술: 변화와 전환을 위한 동의 가능한 설계도/ 타당성, 건전성 검사/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가치 문제

2. 철학적 태도의 몇 가지 유형

● 철학적 태도와 경향의 예시

“중도를 행하는 인물을 얻어 함께할 수 없다면 반드시 광자나 견자와 함께할 것이다. 광자는 나아가 취하며 견자는 하지 않는 바가 있다.”

(不得中行而與之 必也狂狷乎 狂者進取 狷者有所不爲也)

『논어』, 「자로」

-광자(狂者): 과격한 사람, 과감한 사람, 뜻이 원대한 사람/ 뜻이 높으나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(至極高而行不掩)

-견자(狷者): 뜻이 견고한 사람, 고집이 센 사람, 한 가지만 고집하는 사람/ 지혜는

미치지 못하나 지킴에는 남음이 있는 자(知未及而守有餘)

● 건자의 철학적 경향

- 논리적 정합성이나 엄밀성, 물질세계의 원리 규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적 경향
ex) 과학적 실재론, 논리실증주의, 자연철학, 언어철학 등
- 옳음과 정치적 공정성, 또는 그 논리적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적 경향
- 형이상학 비판자들
- 이성을 최종 심급으로 하는 철학(인식, 언어 등)

● 스피노자

- 『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에티카』
ex) 공리 정의 증명 등
- 세계, 신, 자연의 상하 경계를 지우고 같은 지평에서 다름으로써 “신을 세속화”시켰다는 평가
- 인간을 초과하는 것들에 대한 회의와 비판
- 이 때문에 강력한 비판 철학으로서 정치적 변혁의 이론적 토대 제공

● 순자(荀子)

- “하늘을 위대하다고 여겨 사모하는 것과 사물을 축적해 처리해나가는 것은 어느 쪽이 훌륭한가(중략) 인간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늘을 사모하면 만물의 실정을 잃게 될 것이다.” 『순자』, 「天論」 편

● 비트겐슈타인(Ludwig Wittgenstein, 1889-1951)

- “말해질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질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.” 『논리-철학 논고』

cf) “시는 순간의 형이상학이다. 시는 짧은 시 작품을 통해 공간 속 우주의 비전과 한 영혼의 비밀, 하나의 존재와 사물들,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. 시가 삶의 시간을 따라간다면 삶보다 못할 것이다. (중략) 시는 서두, 원리, 방법, 증거를 거부한다. 시는 의심을 거부한다.”

- 가스통 바슐라르, <시적 순간과 형이상학적 순간>

● 광자의 철학적 경향

- 우주적 근원과 구조로 향하는 형이상학
- 인간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초과의 철학
- 기존의 언어와 계보, 개념을 가로지르는 횡단자들
- 말해질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철학
- 생성과 사건, 변화와 유행을 말하는 철학

● 왕양명(王陽明, 1472~1529)

- 용장의 깨달음 “성인의 도는 나의 본성만으로 충분하며 이전에 바깥의 사물에서 이치를 구한 것은 잘못임을 알았다.”
- 내 마음이 이치다(心即理).

● 니체(Friedrich Nietzsche, 1844-1900)

-인간의 가장 커다란 위험은 병자이다. 악인이나 맹수가 아니다. 실패자, 패배자, 좌절의 자-가장 약자들인 이들은 대부분 인간의 삶의 토대를 허물어버리고 삶이나 인간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가장 위험하게 독을 타서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들이다. - 『도덕의 계보』

-사그라져가고 변천해가면서 바뀌어가는 모든 것에 대한 경멸, 증오. -한결같은 것을 좋다고 여기는 이 가치평가는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인가? 분명히 여기서는 진리의 의지가 단지 한결같은 것으로 놓고 싶다는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.

- 『힘에의 의지』

● 이탁오(李卓吾, 1527-1602)

- 『대학』에 “대인의 배움은 지극한 선에서 그친다”라는 말이 있는데 지극한 선이라면 무선(無善)을 말한다. 무선하면 자취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답습할 수 있겠는가? 그러니 답습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답습할 수도 없고 답습해서도 안 된다. - 『장서』

● 조정자의 철학 - 칸트(Immanuel Kant, 1724-1804)

-그것을 생각하는 일이 잦고 도 오래 계속될수록 언제나 새삼스럽게 사무치는 감탄과 두려움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둘 있다. 즉 그것은 내 머리 위 별이 반짝이는 하늘과 내 안에 깃들여 있는 도덕법칙이다. - 『순수이성비판』

● 균형자의 철학 - 공자

-내면을 발견하고 소통하며 세계에 참여하라

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

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

人不知而不謫 不亦君子乎

- 『논어』, 「학이」 편

● “왜 철학을 하는가?”

-자기로 굴러 떨어지지 않기 위해

-세계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

-다른 사람과 공존하기 위해

→광자의 지향을 가진 견자들의 소통법

● “그래서 철학은?”

-지속 가능한 충동

-치유이자 극복으로서의 말하기, 글쓰기

-엽등(躑躅)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